

고대근동자료와 관련된 구약해석에서 개혁주의 성경관의 중요성



신득일(고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서언

최근 피터 엔즈가 쓴 ‘아담의 진화’는 복음주의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¹⁾ 이 책의 제목은 아담이 진화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진화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엔즈가 여기서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충격적이다. 그가 구약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관점은 고대근동자료를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창세기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 설화라고 하면서 구약은 고대문헌으로서 객관적인 역사적 정보나 현대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²⁾ 즉 고대인들이 기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화를 만들어내었듯이 인류 시조인 아담에 대한 창세기의 기사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이스라엘도 근동의 한 부분으로서 한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과 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담에 대한 그의 결론은 그 전에 출판한 ‘성육신의 관점에

1) P. Enns, *The Evolution of Adam: What the Bible Does and Doesn't Say about Human Origin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12).

2) Enns, *The Evolution of Adam*, xviii.

서 본 성경영감설'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³⁾ 즉 그의 성경관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엔즈의 말대로 만약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근간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원죄와 구원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고 아담과 관련된 언약과 바울의 진술도 다 믿을 수 없는 전통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의 결론은 기독교의 존재이유를 회의적으로 보게 만든다.

그의 책 '아담의 진화'를 읽는 독자는 누구나 고대근동자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고대근동자료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관에 근거하여 원론적인 답을 주려고 시도했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고대근동사상에 입각한 해석의 적절한 기준으로서 이 성경관을 제시할 것이다.

2. 고대근동자료에 대한 구약해석의 입장

학자들은 19세기 중엽부터 쏟아져 나온 메소포타미아의 유물에 남겨진 고대 언어를 판독함으로써 사장되어있던 수 만개의 문헌을 번역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학자들의 관심은 다양했지만 초기 연구는 주로 성경을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었다.⁴⁾ 그러나 그런 경향은 오래 가지 않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졌다: 1. 고대근동자료로 인한 구약편하, 2. 고대근동자료에 비중을 두둔 구약 재해석, 3. 구약에 비중을 둔 고대근동자료 활용.

3) P.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피터 엔즈,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영감설』, 김구원역 (서울: CLC, 2006).

4) Cf. John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6), 15.

1) 고대근동자료로 인한 구약편하

구약을 고대근동자료의 산물로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사건은 바벨-비벨 논쟁(Babel-Bibel Streiss)이 될 것이다.⁵⁾ 이 논쟁의 주창자인 프리드리히 델리취(1850-1922)는 바벨론 종교와 문화를 옹호하면서 구약성경을 바벨론의 아류로 폄하했다. 그의 네 차례 강의 중에서 두 번째 강의가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⁶⁾ 그는 구약의 내용이 결코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가장 늦게 형성된 주변 문화의 산물로서 겨우 주전 550년에 와서야 비로소 근동의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⁷⁾ 그는 바벨론이 고대근동의 ‘두뇌’라고 하면서⁸⁾ 이스라엘의 법률과 관습, 화폐, 도량형, 법전의 외형까지도 바빌로니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구약과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 되는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 및 안식일의 기원도 바빌로니아 문헌에서 찾았다. 바빌로니아의 안식일(šabattu)은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⁹⁾ 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길가메쉬 서사시를 홍수 이야기의 근원으로 본다.¹⁰⁾ 그는 구약의 창조기사를 바빌로니아의 창조신화와 비교하면서 구약의 시인들과 선지자들이 마르둑의 영웅적인 행위를 야웨에게 바로 옮겨갔다고 한다.¹¹⁾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도 바빌로니아 인들에게 있다고 한다.¹²⁾ 델리취는 아담의 타락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오래된 바빌로니아 원통인장을 제시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과일나무와 뱀. 그는 “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형상과 성경의 타락 이야기 간에 아무런

5)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 신득일, 『구약정경론』(서울: 생명의 양식, 2011), 90-96.
6) Bill T. Arnold & David B. Weisberg, “A Centennial review of Fridrich Delitzsch’s “Babel und Bibel” Lectur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1/3, 2002, 141.
7) Fridrich Delitzsch, *Babel und Bibel: Ein Vortrag* (Leipzig: Hinrichs, 1902), 5.
8) Delitzsch, *Babel und Bibel*, 27.
9) Delitzsch, *Babel und Bibel*, 28-29.
10) Delitzsch, *Babel und Bibel*, 31.
11) Delitzsch, *Babel und Bibel*, 33.
12) Delitzsch, *Babel und Bibel*, 35.

연관이 없는가?”라고 물었다.¹³⁾ 하나님의 천사나 그룹도 아슈르나실 팔의 궁전에서 나온 날개달린 천사 상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¹⁴⁾ 더욱 놀라운 것은 함무라비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세 토판에 ‘야웨’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다: “야웨는 신이다”(Ia-ah-ve ilu, Ia-hum ilu). 야웨는 천년 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따른 고대의 유업이 되었다고 한다.¹⁵⁾ 델리취는 바빌로니아의 선지자들도 그들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약의 계시성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훈련된 신학자들이라면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축자영감 교리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는 모세가 야웨께 율법을 받은 것이나 함무라비가 사마쉬에게서 계시를 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¹⁶⁾ 뿐만 아니라 그는 위의 입장을 총 정리한 ‘위대한 기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의 가치를 무시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을 강탈을 일삼은 유목민으로 폄하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터무니없는 숫자와 과장된 사건과 규모 그리고 야웨를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으로 채택했다는 모세의 주장 등 모든 것을 기만으로 묘사하면서 기독교의 책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¹⁷⁾

메소포타미아의 문헌과 구약의 내용 간에 유사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문헌의 기원이 된다는 델리취의 주장은 성경의 권위와 같은 신앙고백적 입장을 버리고 구약이 단순히 다른 고대문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는 종교사학파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범바벨론주의’적 입장을 따랐다. 그에겐 구약이 고대근동 자료에서 차용하여 유대적인 특색에 맞게 개작한 후대문서라는 것이

13) Delitzsch, *Babel und Bibel*, 37.

14) Delitzsch, *Babel und Bibel*, 41-43.

15) Delitzsch, *Babel und Bibel*, 47.

16) Delitzsch, *Babel und Bibel: Zweiter Vortrag*, 26.

17) Friedrich Delitzsch, *Die grosse Täuschung: kritische Betrachtungen zu den alttestamentlichen Berichten über Israels Eindringen in Kanaan, die Gottesoffenbarung vom Sinai und die Wirksamkeit der Propheten I, II*,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1920, 1922), I, 10-11; 24-29; II, 10-15: “소위 말하는 ‘구약’은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가정을 위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I, 97).

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텔리취는 순진성과 불신을 드러냈다”는 후프몬의 평가는 적절하다.¹⁸⁾

그의 주장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서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서 고대근동문헌을 사용하는 학자와 세속 학문으로서 고대근동학을 연구하면서 구약의 가치를 폄하하는 학자들 간에 이념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즉 고백적 학자들과 비평학자들 간에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¹⁹⁾ 결국 서로 다른 성경관이 양자를 갈라놓았던 것이다.

2) 고대근동자료에 의존한 구약 재해석

고대근동자료를 의존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은 구약이 그 자료의 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약을 저급한 문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구약에 나타난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사용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고대근동자료에 근거한 문화와 사상의 영향으로 구약의 고유한 교훈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단락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존 윌튼의 창조에 대한 이해

윌튼은 고대근동사상에 기초해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함으로써 구약의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창세기 해석에 대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창세기 이야기가 물질의 기원이라기보다는 기능의 기원과 관련되고 신전이념이

18) H. B. Huffmon, "Babel un Bibel: The Encounter Between Babylon and the Bible," in *The Bible and Its Traditions*, ed. M. P. O'Connor and D. N. Freedma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3), 319.

19) Cf.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17.

20) J.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1), 198–99.

창세기 우주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²⁰⁾ 그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대근동사상의 다양한 개념을 사용한다.

월튼은 먼저 이스라엘 종교와 구약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넓게 고대근동의 인식환경(cognitive environment)을 지적하고 그것은 이스라엘도 고대세계에 살았던 사람들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우리는 고대근동의 방대한 문학과 히브리 성경에 보존된 이스라엘 문학을 그들이 제공하는 통찰력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²¹⁾ 이와 관련하여 월튼은 고대인들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다룬다. 다양한 고대의 우주기원에 관한 신화에 의하면 고대인들은 현대인과 같은 존재론/본체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고대인들은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존재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부여되고 기능이 주어지는 것에서 비로소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관점에서 우주생성의 과정은 물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능과 관련된다고 한다: “우주생성 이전의 세계는 물질이 없는 세계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과 질서, 다양성과 정체성이 없는 세계로 이해했다.”²²⁾ 그리고 신전이념이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우주는 신들이 거하는 신전이라는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도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데서 확인된다고 한다. 심지어는 그 용어까지도 건축기사와 유사하다고 한다(창 11).²³⁾ 그렇다고 해서 월튼이 구약의 안식과 신전 개념을 고대근동사상에서 차용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창세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그 전에 출간한 ‘고대근동사상과 구약’에 기초한 것이다.²⁴⁾ 성경의 창조론에 대한 그의 주장은 그 책의 연장선에서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한 것이다.

그의 결론은 성경보다는 고대근동자료에 의존하여 성경바깥에서

21)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16.

22)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42, 119.

23)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181.

24) John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6).

답을 찾으려고 한데서 나왔다. 물론 윌튼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고대인들의 인식환경에서 볼 때 구약의 창조는 기능에 맞추어져 있지 물질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창 5:1; 신 4:32; 사 40:26, 28; 42:5; 45:18; 암 4:13). 성경에 명시된 사건이나 주제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피터 엔즈의 아담의 역사성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피터 엔즈는 고대근동자료에 근거한 해석을 시도하면서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했다. 그는 성경이 고대근동의 주변인들의 규범과 개념 그리고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의 성경관은 “현대복음주성경론은 구약을 고대근동의 현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데서 나타난다.²⁵⁾ 그는 구약이 고대의 문헌으로서 피상적인 통일정보보다는 다양성을 가진다고 말하면서 합리주의적 판단에 경고를 보낸다.²⁶⁾ 그리고는 성경에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현상들은 그 당시의 종교와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의 성경관은 이른바 ‘성육신적 영감’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것같이 문화적인 상황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는 단지 이것을 성경의 영감을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돕기 위한 유추로 사용했다.²⁷⁾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로서 성경

25)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67.

26)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107–108.

27)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168.

과 비교한 것은 이전에 카슨이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²⁸⁾ 그러나 성자 예수께서 성육하신 것을 성경의 영감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단회적인 유일한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양성론은 그분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엔즈는 ‘아담의 진화’에서 자신의 성육신적 영감론을 세 가지로 요약한 가운데²⁹⁾ 아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저자들이 당대의 사상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창조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벨하우젠의 입장을 따르면서 “창조 이야기는 정체성(self-definition)에 대한 고대인의 질문에 응답하는, 신학적으로 작업한 집성체의 한 부분으로서 더 큰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⁰⁾ 이 말은 구약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에 의하면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서 등장한 신학적 산물이다: “아담의 이야기는 출애굽부터 유배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반영한다.”³¹⁾

28) D. A. Carson, ‘Approaching the Bible,’ in D. A. Carson, R. T. France, J. A. Motyer & G. J. Wenham (ed.),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Leicester, Englan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3.

29) Enns, *The Evolution of Adam*, xi: “(1)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문화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현재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이곳저곳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경은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폭넓게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록된 개별적인 기록물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다양성은 놀랄 일이 아니다. (3)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은 당대의 유대적 사상계를 반영하기에 구약의 창의적인 개입을 설명한다.”

30) Enns, *The Evolution of Adam*, 33.

31) 엔즈는 이스라엘과 아담의 관계를 도표로 설명한다. Enns, *The Evolution of Adam*, 66.

이스라엘		아담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창조	→	흙에서 아담 창조
계명(모세의 율법)	→	명령(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나안 땅	→	낙원 동산
불순종으로 인한 축출과 죽음	→	불순종으로 인한 축출과 죽음

엔즈는 신약에서 바울이 아담을 언급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했다. 그는 바울에게 아담은 중요한 신학적, 역사적 인물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이 창조된 첫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³²⁾ 그가 아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이렇게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는 제2성전 시대의 유대주의적 해석관습이다.³³⁾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등장시킨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와 사망이라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같은 구세주를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³⁴⁾

아담에 대한 엔즈의 해석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타락도 없고 원죄도 없다. 그러면 언약과 구속역사도 불필요한 개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심에 두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생명 없는 전승의 교훈이 되고 말 것이다. 구약본문이 고대문화권 속에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승의 집합체로 보는 것은 성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그 본문이 그 문화 속에 당대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대의 전승에 의존해서 구약본문을 재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의 새로운 성경관은 복음주의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

32) Enns, *The Evolution of Adam*, 120.

33) Enns, *The Evolution of Adam*, 81.

34) Enns, *The Evolution of Adam*, 82.

3) 구약에 의존한 고대근동자료 활용

고전적 의미에서 구약해석방법으로 제시된 역사문헌비평과 전승사비평은 구약본문이 제시하는 사건의 역사성을 심하게 훼손시켰다. 역사문헌비평은 성경내부에서 문헌에 대한 이념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바깥 세계를 보지 못했고 전승사비평은 역사성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문헌의 전승과정과 성격 그리고 기능을 살피는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20세기의 고고학의 풍부한 발굴로 말미암아 상당한 부분에서 구약의 역사성을 정당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물론 고고학적 발굴물이 구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유적과 문헌을 통하여 구약역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 고대근동자료를 통한 구약역사 고증

후리안 사회적 관습을 보여주는 누지문서가 족장들의 관습의 배경이 된다는 것과 마리 문서에 나타난 이름이 족장들의 이름과 유사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또 오므리와 아합이 모압을 40년간 통치했다는 메사의 석비의 기록이 그들의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는 구약외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과 살만에셀 3세의 방침탑이 예후시대에 이스라엘이 앓수르에 종속되었다는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실로암 수로의 명문이 히스기야의 수로공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고레스의 문화관용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간 배경을 알려주는 고레스의 원통인장도 잘 알려져 있다.

비교적 최근의 자료로서 텔 단의 석비가 오랫동안 의심을 받아온 다윗과 그의 왕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여준 것과 딘나에서 발견된 미디안의 화려한 성막은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런 성막을 가

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열왕기 말미에서(왕하 25:27-30; cf. 렘 52:31-34) 여호야킨이 바벨론에서 왕의 대접을 받는 드라마틱한 사건에 대한 증거로서 그의 이름(야우킨)이 바벨론의 배식명단에서 발견되었다.³⁵⁾ 또한 팔레스타인 안팎의 문헌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름은 구약의 역사성을 확인시켜준다. 물론 이 문헌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성경본문과 관련시켜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바른 성경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이차적인 자료로 전락할 것이다.

(2) 고대근동자료를 이용한 본문해석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개념에 맞추어서 주어졌기 때문에 당대의 문헌이나 유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나 사건이 많다. 구약이 주변의 문화와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불구하고 당대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대근동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① 우주적 개념: 먼저 구약에 나타난 우주관은 현대인이 가진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이 둥글고 궁창이 딱딱한 것으로 묘사된 표현과 같은 것이 그렇다(욥기 22:14; 겔 1:22). 그렇다고 구약은 아무런 우주지형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 전역에 있던 공통된 우주지형을 공유했던 것이다. 차이점은 신이 자연현상에서 없어졌다는 것이다. 자연현상은 신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을 위한 도구였다.³⁶⁾

다음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동산의 모습은 역사적이지만 신학

35) A. 히트 외, 『고대근동문화』, 신득일, 김백석역 (서울: CLC, 2012), 91.

36)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174-75.

적이고 상징적인 면도 있다. 후자의 개념은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대근동사람들의 우주적인 신전개념과 관계가 있다. 고대인들에게는 산은 신들의 처소가 되고 그들의 신전에서 물이 공급되는 것 등이 에덴동산이 성전의 원형에 대한 개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창세기기자는 에덴동산을 단순한 메소포타미아의 일개 농지가 아니라 성소의 원형,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장소로 보았다. 에덴동산의 많은 특징이 후대의 성소에서도 발견되는데 특히 성막이나 예루살렘성전에서 발견된다. 이 유사점들은 에덴동산 자체가 일종의 성소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³⁷⁾ 이렇게 고대근동자료에 근거해서 에덴동산이 지리적인 면보다는 고대인의 우주적 신전개념을 반영하여 그 동산의 상징적 의미를 얻게 된다.

② 언어: 먼저 제사장 축복에서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민 6:25)에서 ‘얼굴을 비추다’라는 말은 현대인에게는 의미전달이 안 되는 말이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표현이다(시 67:2).³⁸⁾ ‘얼굴을 비추는 것’은 신이나 신격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

37) G. J. Wenham, “Sanctuary Symbolism in the Garden of Eden Story,” in *Proceedings of the Nin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division A: The Period of the Bible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1986), 19; 좀 더 구체적인 설명: G. Beale,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4), 66–80.

38) 우가릿 문헌: “태양의 얼굴이 내게 비추었다”(pru 2, 15:9, 10 wpn sps nr by), Loren R. Fisher, *Ras Shamra Parallels I*, *Analecta Orientalia* 49, Roma: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2, 55–6; “내(사신)가 태양(왕) 앞에 왔는데 그 태양의 얼굴이 내게 대단하게 비추었다”(rbt lpn sps wpn sps nu by mid), Samuel E. Loewenstamm, *Comparative Studies in Biblical and Ancient Oriental Literatures*,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20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0, 266; 주전 9세기 아카드어로 된 쿠두루 석비: “그가 밝게 응시하며 얼굴을 비추었다”(iv 39); 주전 6세기 신바벨론 문헌: “그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그녀(나부나이드)의 빛나는 얼굴로 나를 꾸준히 바라보고 실제로 그가(마르둑) 자비를 베풀도록 했다”, Michael Fishbane, *Form and Reformulation of the Biblical Priestly Blessi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3.1 (1983) 117; J. B. Pritchard,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310.

는 대왕에게 적용되는 관용구다. 물론 구약에는 ‘비추다’는 동사가 하나님께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승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은유적 표현의 의미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심판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호의와 만족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태도를 뜻한다(시 80:4, 8, 20; 119:135; 단 9:17). 이외에도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된 관용구는 많다.

다음으로 히브리어 동사 ‘야다’(yāda)는 ‘알다’라는 뜻이지만 가끔 ‘성관계를 가지다’란 의미로 쓰인다(창 4:1, 17; 19:5, 8). 이것은 썬어의 공통된 현상이다: “(다른) 남자를 알지(idû) 못하는 남편의 아내”(아카드어)³⁹⁾; “바알이 아낫을 안고 그녀와 동침했다(yd). 그녀는 임신해서 출산했다”(우가릿어).⁴⁰⁾ 이런 고대언어의 용법이 ‘알다’라는 말이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것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말라기의 ‘치료하는 광선’(말 4:2a)에서 ‘태양의 광선으로’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그것의 날개들로”(비커나페하, bikenâêh)로 묘사했다. 이 표현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자주 그려내는 ‘솔라 디스크’(sola disc)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켄아텐이 가족과 함께 아텐(Aten) 신을 섬기는 장면을 묘사한 부조다. 거기서는 태양이 마치 날개를 펼친 듯이 비추는데 그 광선의 끝에 손이 달린 것으로 표현했다.⁴¹⁾ 이 외에도 고대근동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 너무나 많다.

③ 구조물과 형상: 우선 바벨탑에 관한 이해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가 발견되기까지는 몰랐다. 바벨탑 건축은 하늘을 공격하거나

39) M.E.J. Richardson, *Hammurabi's Laws: Text, Translation and Glossa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82-83, 186.

40) G.J. Botterweck, *yd'*, in: Botterweck und H. Ringgren,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82), 490.

41) Cf. 신득일, 『101가지 구약 Q&A』(서울: CLC, 2015), 218.

사람이 그 탑을 하늘로 올라가는 길로 보지 않고 그 탑은 신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사다리나 문으로 사용하도록 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의 바벨탑은 신이 강림하는 길을 내주는 것으로 보고 그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⁴²⁾

다음으로 그룹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그룹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말이다. 그룹은 사람의 얼굴과 날개가 있는 황소의 몸이 혼합된 동물로 묘사되거나 사람이나 황소 혹은 사자나 독수리의 신체 부분을 결합한 형태를 띤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자 몸에 사자 머리와 날개를 달거나 사람 머리에 날개가 붙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염소의 머리와 날개가 달린 혼합체도 있다.⁴³⁾ 아나톨리아와 시리아에도 날개달린 사자에 독수리나 매 혹은 용의 몸 일부가 결합된 유사한 형상이 있다.⁴⁴⁾ 그리고 이집트 스�핑크스 형상은 고대근동에 널리 퍼져있었다. 그런 형상들은 피조물에 신의 속성과 능력을 덧붙이는 의미가 있다. 이런 자료는 구약의 그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출 25:18-20; 왕상 6:27; 겔 1:6-11; 10:14-22). 즉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고대인들이 그룹의 펼쳐진 날개를 통하여서 신의 초월성을 나타내었던 것이다.⁴⁵⁾

④ 왕: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근동에서는 왕은 ‘신의 형상’으로서 그 신을 대신한다. 그래서 구약의 정의와는 달리 그 신의 형상은 왕에게 한정되었다. 아시리아의 왕 에살하돈이 “신의 완벽한 모양”이라고 언급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자질과 특성을 말한다. 왕

42)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120-121.

43) D. Collon, *First Impressions: Cylinder Seals in the Ancient Near Eas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7), 32-74.

44) M. Metzger, *Königsthron und Gottesthron*, AOAT 15/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5), 320-322.

45) E. Borowski, “Cherubim: God’s Throne?”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1:4 (1995), 36-41.

이 신의 형상에 배였다는 것은 그의 권력과 특권의 원천이다.⁴⁶⁾ 이것은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준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왕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은 그들이 ‘신들의 아들’로 통한다는 것이다. 수메르 왕들은 스스로 신의 소생임을 밝혔다: 에안나툼은 닌기르수의 아들; 우르-남무는 여신 닌수나의 아들; 구데아는 가툼독의 아들.⁴⁷⁾ 왕들의 이런 관행은 ‘하나님(신들)의 아들들’(창 6)이란 고대의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들은 왕과 같은 신분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⑤ 점: 요셉이 ‘마시며 늘 점치는 것’(창 44:5)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대 근동의 예언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이집트 마법사가 잔으로 점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절차는 잔이나 사발에 맑은 물을 붓고 거기에 금이나 은 조각 또는 보석을 맑은 물에 떨어뜨린 다음 약간의 기름을 붓는다. 그때 기름과 그 조각들 사이에서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예언이 주어진다.⁴⁸⁾ 물론 이 말로써 요셉이 점을 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창 44:2) 근동의 자료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예레미야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란 표현의 실체와 관련된 것이다(31:33). ‘두다’와 ‘쓰다’로 언급된 이 표현은 은유법으로 쓰였는데 그 은유의 실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탁의 절차로 사용된 내장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은유가 내장점의 세계에서 온 것이라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지닌 백성이 ‘소통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마음

46)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212.

47)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282.

48) A.G. Fruchtenbaum, *Ariel's Bible Commentary: The Book of Genesis* (San Antonio, TX: Ariel Ministries), 591.

의 기록은 율법을 제시할 것이다. 돌판의 율법은 가르쳐야만 했고 무시될 수 있었다. 마음에 있는 율법은 원형의 매개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시될 수 없다. 이 은유에 대한 해석에서 마음은 매개체이고 이 은유는 계시의 은유이지 기억의 은유가 아니다.⁴⁹⁾

이 단락에서 쓰인 고대근동자료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는 바른 성경관을 유지할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고대근동자료와 성경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면서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자료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구약본문을 정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의 인식환경을 고려하고 그들의 문화적 이해를 사용한 것이다.

3. 개혁주의 성경관의 중요성

고대근동자료를 다룰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성이 아니라 유사성에 있다. 구약에 대해서 고백적인 입장을 취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구약본문이나 관행보다 훨씬 오래된 근동문헌에 구약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창조신화와 홍수이야기, 함무라비법전 그리고 후대의 아메네모페 지혜가 그렇다.

고대근동의 다양한 창조신화는 구약의 창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낙원 딜문(Dilmun)의 신화는 엔키와 닌후르삭이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고 가장 잘 알려진 바벨론 창조신화는 마르дук이 죽은 티아맛의 몸을 반으로 잘라 하늘의 궁창과 땅을 창조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때 그는 신들을 천한 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별과 해 그리고 달을 순서대로 배열했다. 마르дук은 에아(Ea)의 도움을 받아 진흙에다 티아맛의 군대를 이끌던 반항의 신 킹구(Kingu)의 피를 섞어 인

49)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258.

간을 창조했다고 한다. 이집트의 한 창조신화에는 아툼(Atum)이 혼돈의 바다 위 원시 언덕위에서 신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 세상을 혼돈으로 부터 질서있게 창조했다고 한다. 프타(Ptah)신이 창조를 구상하고 말씀으로 명령함으로써 창조했다고 한다.

위의 창조신화는 구약의 창조기사와 비슷한 요소가 있다: 천지창조, 혼돈과 원시 바다, 창조의 명령, 흠으로 인간창조. 이런 현상은 계시의존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다. 창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보편적이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계시가 점점 한 민족에게 집중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곳에는 신화가 무성하게 자랄 뿐이었다. 처음에는 동일한 창조사건을 다 잘 알았겠지만 계시가 사라진 이방세계에서는 계시의 몇 가지 특색만 지닌 지역 신화로 발전하여 계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다양한 신화나 길가메쉬 서사시나 아트라하시스와 같은 홍수 이야기조차도 성경기사의 진의성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의존적 측면에서 보면 그 역사성을 확인시켜주는 측면도 있다.⁵⁰⁾ 즉 창조와 홍수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엔즈와 같이 신화를 고대인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문학으로 이해하면서 성경과 비교하는 유연한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⁵¹⁾

함무라비법전과 아메네모페의 지혜와 같은 경우는 모세의 율법과 솔로몬의 잠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익히 아는 대로 함무라비법전의 경우는 모세의 ‘언약서’(출 20:21-23:19)에 나타난 ‘동해보복’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아메네모페 지혜의 경우는 잠언

50)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신득일, 『구약정경론』, 235-36.

51)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41.

22:17-24:22에서 매우 유사하다. 가장 큰 차이는 잠언에는 ‘여호와’와 관련된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다. 아메네모페가 “너의 귀를 주어서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이해하도록 너의 마음을 주어라. 그들을 너의 마음에 두는 것이 이롭고,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해가 있을 것이다”고 한 것은 잠언 22:17-18a에도 약간 의역된 형태로 나타나있다. 그 지혜자가 “그의 마음이 탐식에 이끌린다”는 것은 잠언 23:6-7과 유사하다.⁵²⁾

함무라비법전과 아메네호페 지혜가 성경과 유사한 내용을 지니지만 시대적으로 앞 선 그 문헌들이 구약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전혀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볼 때 이 유사성이 구약성경이 고대문헌에서 차용한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본문이 표현이나 내용상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존성 때문에 성경계시의 독특성이나 성경의 명료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의 글이 계시의 말씀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문헌의 내용이 성경말씀으로 기록될 때 그것은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그 유사성이 성경의 영감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것의 기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다.”⁵³⁾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글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자체의 의도에 맞추어서 원자료와는 다른 목적을 가진 무오한 말씀이 된다. 그것이 비록 오랜 기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온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정경으로서 권위를 지닌다.⁵⁴⁾ 이 말은 그 유사한 부분을 지닌 고대근동자료 자

52) Pritchard,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421, 423.

53) C. Aling, *Egypt and Bible History: from earliest times to 1000 B.C.*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81), 126.

54) 윌튼은 화행이론을 통해서 소통(구술)의 권위와 무오성을 설명했다. John H. Walton and D. Brent Sandy, *The Lost World of Scripture: Ancient Literary Culture and Biblical Authority*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3), 41-48.

체는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자료가 구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충족성과 정경성을 무시하는 것이다.⁵⁵⁾

그래서 고대근동자료를 구약해석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두 문헌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록 유사한 내용이 있을 지라도 고대근동의 자료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 영감된 권위있는 본문이 아니다. 자료는 어디까지나 자료로서 가치를 지닐 뿐이며 그 자료가 성경의 고유한 가치를 손상시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월튼과 같이 창세기가 물질적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엔츠와 같이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약을 해석할 때 고대근동자료를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고대근동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성경관이다. 고대근동자료를 유용한 해석의 수단으로 정당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성경의 축자영감과 무오성과 같은 개혁주의 성경관에 달려있다.

4. 결어

구약은 고대근동문화권 속에 주어졌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에 맞추어서 기록되었다. 그 개념은 고대인들이 공유하는 인식환경이다. 그 인식환경은 고대근동자료를 연구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구약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그 자료를 사용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본문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대근동자료에만 의존함으로써 구약의 가치

55)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2), 영감의 의미: 121-126; 충족성: 182-190; 무오성과 권위: 275-280; 정경성: 281-304.

를 무시하거나 고대근동자료에 더 많은 비중을 둬으로써 구약본문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일을 초래한다.

고대근동학은 한 마디로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유용하게 사용하면 요긴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유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관이다. 무엇보다도 계시의존 사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정확무오한, 권위있는 그리고 영감된 말씀이라는 전제하에서 고대근동자료로부터 유익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럴 때 개혁주의 성경관은 그 자료를 사용해서 구약을 해석하는데 따르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그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이다.